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1996년도

협동장로 · 협동권사제 도입

합동교단에서 안수 · 취임한 사람으로
이명이라 후 만 2년이상 경과자에게

교회는 '타교회에서 이명이라한 장로 및 권사의 봉사 부서 임명 규정'을 확정함에 따라 1996년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타교회에서 장로 혹은 권사로 시무중 합당한 사유에 의하여 총현교회에 이명이라한 사람중 신앙노선이 장로교회와 일치하고 교회 인사규정에 적합한 사람에게 심사를 통하여 임명직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

- 1) 인사위원회
- 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직선정 기준(장로/권사)에 적합한 자
- ② 합동측 교단에서 안수 혹은 취임한 자
- ③ 전 출석 교회의 신앙 및 교회생활에 하자가 없는 자

신성종 목사

총현교회

위임목사직(당회장) 사임

신성종 목사가 지난 10월 19일 일신상의 사정으로 당회장직을 사임했다. 당회는 당회장 청빙위원을 선출했다.

④ 이명이라한 사유가 합당하며 신앙이 총현교회와 일치되는 자

⑤ 이명이라 후 2년이 경과한 자

⑥ 인사위원회 면접에서 합당하게 인정된 자

2) 당회

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에 합격된 자

② 당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회원의 2/3가 봉사를 허락한 자

2. 제출서류

- 1) 이명이라한 사유서(본인이 직접 작성)
- 2) 이명증서 및 전 출석 교회 당회장의 추천서
- 3) 경력증명서(혹은 이력서)
- 4) 총현교회 교적부(전산실 발행)
- 5) 총현교회 교역자 및 장로 각각 3인 이상의 추천서

3. 봉사직 임명 범위

- 1) 당회원직이나 시무권사직에는 임명되지 아니한다.
- 2) 기타 봉사부서에는 제한이 없다.

4. 교육과정

- 1) 새가족위원회 적응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2) 청지기훈련(제적 수련회)을 받아야 한다.

5. 신분

1) 이명이라한 장로 혹은 권사중 봉사직에 임명되는 자는 제직회원이 된다.

2) ① 항의 사람은 당회원(치리장로) 혹은 시무권사가 아니다.

3) ① 항의 사람은 협동장로 혹은 협동권사로 호칭하고 교회요람에 등재한다.

4) ③항의 사람은 노회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당회의 관장하에 있다.



전교인 기도회

지난 주간 10월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교회는 전 교인 기도회로 모였다. 기간중 매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열린 전교인 기도회에는 김창민 원로목사가 감사로 호세아 14장 1-9절을 본문으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놓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신성종 목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당황했던 교우들은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총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오늘 오전 8:30부터 ~ 오후 3:30까지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장기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헌혈은 누구나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

음으로 헌혈에 동참하자.

· 헌혈을 할 수 있는 기준

- 16세 이상 65세 이하
-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혈압정상, 맥박 정상인 사람
- 법정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 헌혈을 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우리 몸에는 체중의 약 8%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그런데 체중 50-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혈액 중 10% 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의 혈액인데 헌혈은 이 여분의 혈액중에 하는 것이기에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혈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의 1% 정도는 매일 땀이나 신진대사 작용이 반복되기에 헌혈을 하게 되면 조혈기능이 활발해지고 대내혈류가

촉진되어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로 신선한 혈액이 생산, 보충되므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외 의학계의 연구 보고도 있다.

· 헌혈은 곧 자신의 건강진단이다

- 혈압측정 및 건강진단 / 헌혈자의 건강상태와 병력에 대해서 두루 살펴서, 헌혈여부를 판단하며 혈압도 측정한다.

- B형 · C형 간염 및 AIDS · 매독 항체검사 /

헌혈혈액은 헌혈자의 건강과 수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기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 간기능 검사 /

헌혈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며 6가지 항목(AST, ACT, 총단백, 알부민, A/G 비, 콜레스테롤, 요소질소)으로 간기능과 지질대사의 이상유무를 진단해 준다



충현강단

시편 강해

복 있는 자

(시 1:1-6)

시편 제1편은 “복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 첫장 첫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있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있는 자’ 너무나 좋은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보통 말하는 세상의 복보다는 차원이 높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반드시 근심이 섞이고 죄의 때가 묻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거룩한 복,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복을 말합니다. 세상 복은 시간적으로 영원성이 없으나 여기 복있다는 것은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 매몰치 아니한 복, 근심이 섞이지 아니한 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 악인의 꾀를 좇지 않은 자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1:1)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악하고 게으른 자. 책임을 맡아 놓고 일하지 아니하는 직무 태만한 자를 말합니다. 둘째, 악하고 거스리는 자. 그 저 부모를 거스리고, 나라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종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셋째, 음란한 자, 절개를 지키지 않은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삼대 악입니다. 게으른 자, 거스리는 자, 음란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 놀자, 먹자, 때리자 하는 데는 안 끌려 다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을 다하고, 거스리지 말고, 음란하지 않아 악한 자의 꾀에 끌리지 않아야 합니다.

(2)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1:1)라고 했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첫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고 이처럼 하지 말라는 것 한 것이 죄입니다. 둘째, 하라고 한 것을 안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들은 내게 남의 집에 불놓는 것은 죄로 아는데, 자기의 책임 안하는 것은 죄인줄 모르고 슬쩍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십일조를 바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는 것 한 것 하라고 한 것을 안한 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3)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1:1)라고 했는데 오만과 비슷한 것으로는 첫째,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남보다 뛰어난 것을 내어놓고, 비교해보고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둘째, 거만이 있습니다. 거만은 비교도 안 되는데 뽐냅니다. 다른 사람은 삼십 킬로를 드는 힘이 있는데 자기

는 삼십 킬로도 못들면서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체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만이 있습니다. 오만은 하나님보고 주먹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려고 뽐벼드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잘못입니까? 비교해보고, 남보다 앞선다고 뽐내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비교도 못할 것이 뽐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으며 하나님까지 업신여겨 뽐벼드는 그런 자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이 만-쟁이, 교만, 거만, 오만, ‘만’ 자가 붙은 사람하고는 일체 끊어 버려야 됩니다.

(4) 여호와와 율법을 주아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아로 묵상하는 자로다”(1:2)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듣기 즐거워하는 자식은 효자고, 선생님 말씀 잘듣는 학생은 모범 학생이고, 하나님 말씀 잘듣는 신자는 충실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과 같은데,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힘들고 고달프고 시끄럽게 여겨지면 큰일입니다. 한참 전쟁할 때에 상관의 음성이 끊어지면, 원수에게 포위당하며 위태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전쟁터인데 하나님이 음성을 못듣는다면 심령은 얼마나 위태로운데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칭찬만 하는 음성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곱다는 말만 하지 않고 교훈도 하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잘못해도 그냥 둔다면 버릇없는 자식이 되어 자신도 망하고 부모님도 가슴을 찡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울 때에도 복받다는 말도 듣고 이렇게 하면 매맞는다는 말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훈과 책망과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다 즐겁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즐겁게 듣는 것만이 아니고 주아로 묵상합니다. ‘주아’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내가 이대로 하나 안하나 항상 거울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한 다음에 ‘이게 옳은가, 잘못했나’ 거울로 비취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성장하는 나무가 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1:3 상)라고 했습니다. 신자(사람)를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7절에도 나무로 사람을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첫째, 생명에 위협이 없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없다는 말은 공포와 근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그 잎이 청청합니다. 언제나 용기충천합니다. 셋째, 예쁜 꽃이 핍니다. 꽃 색깔이, 충분한 색깔을 발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꽃 색깔이 짙습니다. 넷째,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성공자의 풍요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열매가 많습니다. 풍요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데, 수온이 좋고 땅이 비옥한 옥토에 심겨진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나 사막에 뿌리채 뽑쳐 던지움을 받은 나무는 열이면 아홉은 죽습니다. 죽은 나무는 끝났고, 죽지 않고 간신히 비를배들 꼬이면서 가지가 앙상해가지고 산다해도 남보기에도 좋지 않고, 꽃도 예쁘지 않을 것이고, 열매도 달리지 않고, 사는 자신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사막에 던지운 나무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어디서든지 성공합니다.

(2) 성공자가 됩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1:3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절을 좇아’라는 말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부자집 열한째 아들로 행복스러운 가정에서 형제와 부모님 사랑받으며 있을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 열 사람이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 먹어서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시장에 상품이 된 요셉은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광야의 사막에 던지운 것보다 더 위태롭고, 더 불행합니다. 남의 노예생활을 십년이나 한 요셉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잎도 못피고, 꽃도 못피고, 열매도 못맺고 인간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없이 매맞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던지움을 받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성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성공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에는 가뭄이 안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수분과 영양을 맘껏 섭취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공급받습니다.

1)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평안하지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첫째, 생명에 위협이 없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없다는 말은 공포와 근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그 잎이 청청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다’는 말은 ‘언제나 싱싱하다’는 말입니다. 풀죽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용기충천합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항상 힘있게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걸 사람은 한정이 있어서 더 못커도, 속사람은 날마다 커야 됩니다. 예배당도 커지고 전도구역도 넓어지고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셋째, 예쁜 꽃이 핍니다. 꽃 색깔이, 충분한 색깔을 발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꽃 색깔이 짙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들으면 마음에 부딪치고,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의 말은 확실히 날아 넘어가고, 가슴에 들어오지를 않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꽃은 꽃인데 꽃 색깔이 충분히 발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넷째,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성공자의 풍요를 말합니다. 그가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거 되겠나?’ 그랬는데, 가을에 거둘 때 보니까, 30, 60, 100, 500, 1000배를 거두어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열매가 많습니다. 풍요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입니다.

3. 악인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1)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1:4)라고 했습니다. 사막에 던지움받은 떨기나무 같은 인간은 처음은 재산, 권세, 명예, 태산처럼 쌓아놓은 굉장한 사람같은데 삼년 오년 지나고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태풍불고 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취가 없어지고 육만 남습니다. 인간앞에도 볼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뭘 내놓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2)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1:5-6)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하고 상관없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하고 상관없이 없다는 말은 ‘지옥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세상 떠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의인의 길’이란 뜻은 ‘의인의 소원’을 말하며 ‘인정하시나’는 ‘결제하시나’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결제, 허락해주시나 악인의 성공, 평안을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고 ‘망하리로다’ 형벌만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몸의 주소는, 강남도 있고 성북도 있고 저 영등포도 있고 마포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격의 주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품안으로 정해야겠습니다.

..... 군에서 온 독자의 편지

얼마나 <충현의 만나>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 Q.T 교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종들과 의논해본 결과
소책자로 되지 않으면

늘 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실상 지속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훈련시에도 짬을 낼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건빵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충현의 만나>가 제격인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소유할 수 있고.....

살림! 주님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만나로 채우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 분들을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방부대에서 한 대대 군종으로 사역하고 있는 백종원이라고 합니다. 여건상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글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외딴 곳이지만 선배 형제들의 눈물 어린 기도과 간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부대내에 있습니다. 물론 조립식이고 좁은 곳이지만 얼마든지 엎드려 꿇어 경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심지어 아침 기도회까지 - 군이라는 특수단체이지만 -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간부 포함해서 80-90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병으로 왔을 때부터 군종사역을 인수받았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여차여차해서 대대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 서너달은 그러저럭 배우고 익힌다는 각오로 임해왔습니다. 또한 군선교의 현실을 실체적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가슴한편에 답답함이 늘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우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양육이 부족했다는 것, 아니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배준비 잘하고, 야간

군무자 위로방문 활동 등 몇가지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호흡 연습 곧 경건의 연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었나를 다시 발견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형제들을 성장시키나? 출판부 여러분들이 군대를 경험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군에서는 말씀이 부족합니다. 군목이 계시지만 보통 연대급 이상 T/O가 나므로 저희들 같은 대대는 한 달에 두 세번 군목의 말씀듣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예배를 저희들 자체가 말씀전하고 찬양하고 해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 군종들 몇몇 중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정말 힘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상 예배의 성경공부 시간 갖기는 더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열심은 있지만 언제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칠까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겠고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개개인의 말씀묵상훈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제들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충현의 만나>> 교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Q.T 교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종들과 의논해본 결과 소책자로 되지 않으면 늘 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실상 지속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훈련시에도 짬을 낼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건빵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충현의 만나>>가 제격인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소유할 수 있고.....

솔직히 다른 교제들을 매달 구입할 재정도 부족하고해서 오늘의 결론에 이

른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자!'

대대는 중대, 소대, 분대로 나뉘어 집니다. 기독교 군종은 소대 군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개 중대에 사개 소대 적어도 16개 소대, 각 중대군종 약 20여 명이 군종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신앙이 깊고 오랜 신앙생활한 형제들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군종이지만 군대 와서 믿은 형제들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찌 이런 영혼들을 그냥 두어야겠습니까? 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그래서 얼마나 <<충현의 만나>>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들 형제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내년에 저희 부대는 전방 철책군무를 하러 이동하게 되는데 각 중대가 쪼개어져 각 소대가 하나의 소초생활로 바뀌어 버리면서 분리생활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소대 군종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모든 신앙생활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칫 형제들이 깨어 있지 못하면 예배조차 못드릴 형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으로 확신 가지고 사역할 형제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은혜받은 만나 양

식을 전방소초생활시 말씀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열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례를 무릅쓰고 부탁 드립니다. 매달 20-30부씩 보내어 주시면 정말 잘 활용하겠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실줄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기도하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태입도 간혹 보내어 주시면 합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기도실 같이 방으로 구성된 저희 평화교회는 대대복음화를 위해 교회신축을 목표로 또한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어장광도 같은 군선교지! 함께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저희들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출판의 사명을 갖고 문서선교에 힘써 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백종원 드림

군전도회에서 여섯번째 교회당 헌당 10월 26일(목)에는 장병세례식도

군전도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금) 그동안 지원하여 온 1사단 포병대대교회(반석교회)의 헌당예배 및 헌당식을 가졌다.

군전도회에서는 그동안 각 부대 교회들을 도와 교회당을 지어 주는 일을 했는데 이번이 여섯번째이다. 금년안에 세군데를 더 헌당할 계획이다.

이날 헌당식에서는 전도위원회 지도장정철 목사가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박영식 장로가 기도를 했다.

또한 10월 26일(목)에는 동해교회에서 장병 세례식을 갖고 190여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군전도회는 금년들어 지금까지 900여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군전도회는 이처럼 군부대 교회당 건립지원, 장병세례, 군입대자 신앙지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군전도회에 관심있는 성도들은 군전도회 사무실(본당 1층, 나사렛읍 입구 우측방)로 연락하면 함께 할 수 있다.(사진은 여섯번째로 헌당한 반석교회당)



찬양대 지원을 위한 안내표

예배및명칭			구분	예배시간	연습시간	
					주일	평일
주 일	1부	가브리엘	07:00~08:00	예배전후 1시간	(목) 19:00~21:00	
	2부	임마누엘	09:00~10:00	예배전후 1시간	(토) 16:30~18:30	
	3부	할렐루야	11:00~12:00	예배전후 1시간	(토) 17:00~19:00	
	4부	아 멘	13:00~14:00	예배전후 1시간	(목) 19:00~21:00	
	영어	시 온	09:00~10:00	시작전 1시간	(토) 17:00~19:00	
수 요	1부	호산나(여성)	11:00~12:00	(주)16:00~17:00	시작전 1시간	
	2부	실로암	19:00~20:00		수요예배전후 1시간	



▼ 부대내 평화교회에서의 예배 모습

토·막·소·식

◆ 영아부는 오늘(10월 29일) 11시 20분에 영아부 예배실에서 이두란 공로전도사님을 모시고 학부모 특강을 연다.

◆ 탁아부는 11월 12일(주일), 3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자녀의 건강을 위한 어머니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유아건강법(1세~7세)에 대한 특강을 한다. 강사는 오현구 집사(대한병원 소아과장)이며 장소는 탁아부실(베들레헴 112호실). 유아를 가진 어머니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제1교구 남전도회 전체모임

제1교구(교구장 송환창 장로)는 교구가 확대되면서 전도회 회원들의 상호교제가 어렵게 되자 바울, 베드로, 요한 남전도회 전체 모임을 갖고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사랑하자'는 주제로 10월 21일(토) 오후 7시부터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영아부실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1부 예배 후 2부에는 레크레이션용 하며 친교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레크레이션 대신에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 초등1부는 11월 19일(주일)에 성경이야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제는 ① 사자굴 속의 다니엘 ②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③ 솔로몬의 지혜 세 가지 중의 하나를 발표하면 된다.

◆ 고등부는 11월 5일(주일)에 잃은양 찾기 총동원 전도주일로 모인다.

◆ 청년2부는 오늘(10월 29일) 집회 후 면려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면려회를 구성한 청년2부는 금

청년2부 종교개혁 특강

청년2부는 종교개혁 주일을 지내며 합동신학교의 김영재 교수(교회사 전공)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다.

· 제목: 종교개혁과 청의 교리

· 장소: 청년2부실

(교육관 414호)

· 일시: 오늘, 오후 12시 30분

년으로 면려회 2기제를 맞게 된다.

또한 11월 19일에는 성경암송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시편 42, 46, 51, 80, 96편 중 택일하여 암송하면 된다.

◆ 장년1부는 10월 29일(오늘)에 달란트 발표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① 전도설교, ② 찬양, ③ 시나송, ④ 악기 연주, ⑤ 기타 개인장기 중에서 펼쳐며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부탁하고 있다.

◆ 장년2부는 오늘(10월 29일) 12시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10/30(월) '97성령화대성회 상임위원회 축도
11/1(수) 정석홍 목사 총회장취임 감사예배 설교
11/1(수) 11월 정기당회
11/2(목) 도원회 설교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말씀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알찬수확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과 간)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6.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소서.

30분에 성경암송대회 예선을, 본선은 11월 5일(주일) 12시 30분에 치른다. 범위는 디모데후서 2장, 장소는 교육관 314호이며 대상은 장년2부 전원.

◆ 장년3부는 성경퀴즈대회를 11월 12일(주일)에 창세기 전장과 로마서 6-16장을 범위로, 장년3부 전 학생을 대

상으로 펼친다.

◆ 사랑부에서는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성도로 사랑부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고 있다. 매주일 사랑부 학생들을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된다.

주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카이로 한인교회를 은혜 중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애굽복음주의 신학교는 지난 5월 26일 졸업식을 갖고 지금은 방학중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9월까지의 선교활동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6월 27일 총현교회 부교역자 성지연 수팀(제1진)을 맞이하여 카이로 유적지를 돌아보며 성경과 애굽역사에 관한 특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28일~30일까지 제10차 중동지역 한인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폐회예배 설교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교기도회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기도회가 매주 수요일에 모입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사정을 잘 살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선교 활동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사랑부실에서

7월 3일에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생지연수팀(인솔자: 권성수 교사)를 맞이하여 애굽과 성경역사에 관한 특강을 하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집트 이준교 선교사

이번 COME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또한 6일에는 COME 세미나 초청자들을 위한 제1차 오리엔테이션을 애굽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졌습니다. 6일에는 콤파르다르교회 사역자 마루죽 하비브 목사를 만나 재교회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 알렉산드리아 샤라이 복음교회 건디 이브라힘 목사를 만나 델타지역 개척교회 후반기 지원금을, 8일에는 쇼부라 미트나야마 개척교회 사역자 사무엘 루트피 목사를 만나 교회현황을 보고 받고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11일 애굽복음주의 신학교 카이로 한인교회 후반기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12일에는 알오무라니아 개척교회 사역자 존사미 목사 결혼식에 참석하여 기도순서를 담당하고 축복하였습니다. 13일에는 헬완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구제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4일~8월 4일에는 미국 풀러신학교 여름학기 수강차 도미하여 무사히 귀임하였습니다.

8월 16일~18일에는 카이로 한인교회 주일학교(유치, 유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20일에는 탈비야복음교회 주일저녁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2일~24일 총현교회 부교역자 생지연수팀(제2진) 28명을 맞이하여 이집트의 유적지를 안내하고

특강도 하였습니다.

9월 4일에는 COME 세미나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제2차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9일에는 15 May 교회(개척교회) 사역자 나빌 라비브 목사를 만나 교회현황을 보고 받고 개척교회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0일에는 만세이트 엘 사드르교회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17일에는 자이툰복음교회에서 주일저녁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9일에는 제4회 해외목회자 세미나(COME) 참가자 25명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20일에 참가자들 숙소 및 강의 장소를 배정받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21일에는 환영리셉션과 참석 애굽인 목회자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COME 세미나 참석자 31명(애굽 25, 수단 2, 터키 4)이 총신대를 방문하여 경전회에 참석하여 이크람 람아위 박사(애굽복음주의 신학교 교장)가 설교하고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인도하였습니다.

22일에는 금요찬양 시 선교보고를 하고 23일에는 COME 세미나 참석자들 단합대회 프로그램 인도를 하였습니다. 24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회교관 선교의 밤)시 부슈라 아스마드 목사(자이툰 교회 담임)가 설교하고 제가 통역을 하였습니다.

습니다. 또한 25일에는 COME 세미나 본임토의 프로그램 인도하였습니다.

27일 COME 세미나 마지막 강의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COME 세미나의 모든 일정(8박 9일)을 하나님의 은혜중에 마치고 무사히 카이로에 도착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해외 목회자 세미나(COME 세미나)를 하나님의 은혜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애굽복음주의 교단과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COME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애굽복음주의 신학교와 저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카이로 한국총합선교관 건립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준교 선교사

